

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 채취 적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며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이모씨가 잡은 수산물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22일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2세, 경기도 고양시)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경 주문진항 동방 1km 해상에서 산소 호흡기가 부착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문어, 해삼 등 60여마리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한편 지난해 영북지역에서는 12명의 스킨스쿠버 레저객들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바 있다.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지난 21일 오전

속초소방서 어울림 장학금 전달

10시 서장실에서 고성고등학교 문종범, 설악고등학교 김동준, 양양여자고등학교 손영채 학생에게 속초소방서 어울림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나 홀로 조업’ 어업인 잇따라 실종

거·대진 16·24일 사고 발생... “사람 보이지 않고 배만 빙글빙글...”

지난 22일 대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50대 어업인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4일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0분경 고성군 현내면 대진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대진선적 O호(1.74톤, 연승, 승선원 1명)의 선장 이모씨(59세, 대진리 거주)가 실종돼 경비함정을 동원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대진 동방 1.5마일 해상

에서 조업 중이던 O호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배가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C호(1.61톤, 대진선적) 선장 문모씨(51세)가 발견해 속초해경으로 신고해오면서 알려졌다.

속초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50톤급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해 상황확인 후 수색을 벌이는 한편, 추가로 경비함정 7척, 해군함정 3척, 어업지도선 등 4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광범위 수색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16일 오전 8시 거진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거진선적 4.8t급 J호 선장 장모(49세)씨도 실종됐으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귀항해야 하는 시간대가 지나도록 귀항하지 않자 최모씨가 해경에 신고를 하였으며,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선박만 발견되고 선장은 찾지 못했다.

최광호 기자

예술을 통해 한국전쟁을 되새긴다

2012 국제평화·생명축제 5월 20일 개최... 국내외 작가 등 500명 참여

평화와 생명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세계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DMZ 국제평화·생명축제가 오는 5월 20일 DMZ박물관과 화진포 일원에서 개최된다.

강원도, 고성군,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관광협회가 주관하는 DMZ 국제평화·생명축제는 작가, 학생, 군장병, 관광객, 지역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특히 6.25 한국전쟁 중에 사용했던 총, 탄피 등을 활용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국제 정크아트전을 열어 대한민국 전쟁사중 가장 치열하고 비참했던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예술적으로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작가와 일반인들이 공동 참여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얼

굴을 만들어 전시하며, 평화음악회와 Peace Sing 만들기, 평화 핸드프린팅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은 이번 DMZ 국제평화·생명축제를 통해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등 안보관광지를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평생교육강좌 상반기 수강생 모집

고성군 평생학습관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기로 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75명과 성

인 70명 등 총 1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평생교육강좌는 학습위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강사를 우선 채용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만 18세이상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성인 남·여와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접수는 고성평생학습관(☎680-3447, 680-3560)으로 하면된다.

최광호 기자

고성사랑 실천은 고성신문 주식 갖기부터

고성신문 주주 大모집

창간 2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고성신문과 함께할 주주를 모십니다. 고성신문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 고성신문 주주가 되는 방법

- 고성신문 주식을 구입하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1주의 가격은 1만원입니다. 주주 참여는 10주(1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 주식 구입 의사를 밝히고 금액을 입금하면 주권을 전달해드립니다. 주권은 1만원권, 10만원권, 100만원권 3가지 종류로 발행됩니다.

○ 고성신문 주주가 되면

- 고성신문 주주가 되시면 고성신문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등에 참석해 주주로서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연말 결산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고성신문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에 초대권을 우선 보내드립니다.

○ 고성신문 이사가 되면

- 고성신문 이사는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사 선거를 통해 선임됩니다.
- 이사들은 매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회사 경영 전반을 살필 수 있으며, 경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 이사는 임기 3년의 대표이사, 감사, 전무이사 등의 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 ☎033-681-1667